

# 배우 권상우 “가족 있어서 코미디 연기 잘 할 수 있죠”

영화 ‘스위치’서 톱스타 박강 역 맡아  
인생 바뀌어 하루아침에 무명배우 돼  
“코미디 연기는 내 장점 계속 할 것”  
“지금 열정 넘쳐 현장에 있는 게 좋아”  
“내년 코미디 말고 다른 연기도 계획”

배우 권상우(46)는 자주 변했다. 그의 변화는 필모그래피에서 확인된다. 그간 권상우가 출연한 영화는 각 시기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다. 이를테면 권상우가 막 데뷔했던 2000년대 초는 그에게 청춘스타의 시기였다. 이때 권상우를 대표하는 작품은 ‘동갑내기 과외하기’였다. 이후 권상우는 어느 남성 배우들처럼 선곡은 연기에 눈을 뒀다. 그렇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말죽거리 잔혹사’ ‘야수’ 등에 출연하며 액션스타로 변모했다. 2010년대 초반은 멜로의 시기였다.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통증’ 등에서 그는 특유의 절절한 로맨스로 관객을 울렸다. 그리고 나서 2010년 중후반부터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배우 성동일과 호흡을 맞춘 ‘탐정’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새 영화 ‘스위치’는 이른바 ‘권상우 코미디’의 연장선에 있다. ‘스위치’ 개봉을 앞두고 만난 그는 “앞으로 연기 생활에서 코미디 연기는 항상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모습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필모그래피의 변화를 예고했다. ‘스위치’는 톱스타 ‘박강’의 이야기. 스타의 삶을 살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박강과 한 때 배우를 꿈꿨으나 이제는 박강의 매니저가 돼서 평범한 가정을 꾸린 ‘조윤’의 삶이

뒤바뀌는 게 기본 설정이다. 권상우는 톱스타에서 하루아침에 두 아이를 둔 무명 배우가 된 박강의 혼란을 특유의 너스레 좋은 코미디 연기로 버무린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일명 ‘소라게 짬’을 재연하는가 하면 오정세·이민정 그리고 박소이·김준 등 아역 배우들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호흡을 보여주며 관객을 웃긴다. 대부분 배우가 한목소리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코미디 연기를 반복해서 해낼 수 있는 이유를 권상우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혼을 하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되고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있으니까, 어떤 역할이든 자신감 있게 연기할 수 있어요. 이번 영화에선 아이들과 장면이 중요한데, 총각 배우가 알 수 없는 감정을 전 알고 있죠.” 권상우는 2008년 배우 손태영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스위치’에서 권상우는 어느 때보다 편해 보인다. 그리고보면 그의 연기가 유독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준 게 코미디 연기를 할 때 부터였다. ‘탐정’에서도 그랬고, ‘히트맨’에서도 그랬다. 두 작품 모두 시리즈화 된 건 그만큼 권상우의 연기가 뛰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대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권상우의 코미디 영화는 일정 수준 이상 흥

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작품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시간 참 빨리 가요. 제가 언제까지 영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구요.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작품이 저한테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전 요새 현장에 있는 제일 좋습니다. 다음 신 기다릴 때가 가장 좋아요.” 그는 이제는 자신을 톱스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주목을 받지 않는 현재가 더 편하다고 했다. “코미디 연기는 제 장점이예요. 제가 100점짜리 배우는 아니지만, 제 연기를 100점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코미디 연기인 것 같아요.” 권상우는 그렇다고 해서 코미디 연기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코미디 연기를 안 할 생각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목직한 캐릭터를 맡기도 하고 액션 연기도 다시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여럿 있다고 했다. “코미디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후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중적인 게 가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해요. 너무 코미디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해서요(웃음) 하지만 다른 모습도 보여줄 거예요. 액션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몸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그는 내년에 ‘히트맨2’를 선보인 뒤에 액션과 멜로가 섞인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권상우는 연기 뿐 아니라 제작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시나리오를 쓰거나 연출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간 정리해놓은 아이디어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에는 관심이 있었고 그게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그는 시간 날 때마다 다양한 영화 아이디어를 적어놓는다는



고 했다. 현재 권상우가 차린 제작사에서 시나리오 두 편이 작업 중에 있다. “바로 오늘 새 시나리오가 하나 나와요. ‘야수’처럼 거친 느낌이 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연도 맡을 겁니다(웃음)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열려선 보이고 싶어요.”

## 박재범, KBS 심야 뮤직 토크쇼 MC 발탁

가수 박재범이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의 뒤를 이어 KBS 심야 뮤직 토크쇼를 진행할 후임자로 낙점됐다. 28일 KBS는 내년 2월 중 방송할 새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 (THE SEASONS)’의 첫 번째 시즌 MC로 박재범이 함께한다고 전했다. ‘더 시즌즈’는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이문세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하나의 페퍼민트’, ‘유희열의 스케치북’까지 30년간 이어진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간다. ‘더 시즌즈’는 MC 한 명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맡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네 명의 MC들이 네 개의 시즌을 하나씩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지상파 단독 MC에 첫 도전하게 된 박재범이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채로운 음악을 소개하며 진솔한 토크를 나눌 예정”이라며 박재범 활약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창민·임세준·민규 합류

추정화 연출·허수현 음악감독·김병진 안무가 참여

내년 3월에 개막하는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에 그룹 ‘2AM’ 이창민과 ‘빅톤’ 임세준, ‘DKZ’ 민규 등이 새롭게 합류한다. 제작사 주다컬처에 따르면 백인태와 오종혁, 서승원, 차이도 등 기존 캐스트 11인에 아이돌 출신 이창민, 임세준, 민규와 뮤지컬 배우 김찬호, 조용휘 등 새로운 캐스트가 함께한다. 북한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 역에는 오종혁과 백인태와 김찬호가 캐스팅됐다.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자 원류환 못지 않은 실력자 ‘리해랑’ 역에는 서동진과 이창민이 출연한다. 원류환에 대한 동경심 하나로 최연소 남파 요원이 된 ‘리해진’ 역은 임세준, 민규, 조용휘,

차이도가 맡는다. 극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5446 부대 총 고관 ‘김태원’ 역에는 지난 시즌 함께한 김수용, 서승원과 2020년에 함께한 김주호가 다시 돌아온다. 이중간첩 ‘서수혁’ 역에는 초연 멤버인 임강성과 김의환이 더블 캐스팅됐다. 지난 시즌 서수혁을 맡았던 서동진은 이번 시즌에 ‘리해랑’으로 나선다. 8인극 버전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다른 버전으로 제작된 12인극 규모의 중극장 창작 뮤지컬이다. 지난 5-7월 공연에선 약 1만4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창작진으로는 추정화 연출과 허수현 음악감독, 김병진 안무가가 참여한다. 앙코르 공연은



내년 3월4일부터 5월7일까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진행된다.

## 케플러, 日서 인기 입증...방송·시상식 출연



그룹 ‘케플러(Kep1er)’가 오랜 전통의 일본 음악 시상식과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한다. 28일 소속사 웨이크원·스윙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케플러는 오는 31일 오후 11시 45분 방송되는 일본 대표 음악 방송 프로그램 TBS ‘CDTV 라이브! 라이브! 새해맞이 스페셜! 2022→2023’에 출연해 ‘와 다 다(WA DA DA) (Japanese Ver.)’를 선보인다. 앞서 케플러는 1959년에 시작해 올해 64회를 맞은 오랜 전통을 지닌 시상식 ‘제 64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오는

30일 생방송 출연을 확정했다. TBS 측은 “케플러가 일본 현지 누적 재생 횟수 1억 뷰를 돌파한 데뷔곡 ‘와 다 다’ 일본어 버전 무대를 선사한다. 이들의 파워풀한 댄스 퍼포먼스를 꼭 지켜봐 달라”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케플러는 데뷔곡 ‘와 다 다’로 일본 현지 누적 재생 횟수 1억 회를 돌파, 일본 레코드협회의 플래티넘 인증(2022년 10월 기준)을 받았고, 일본 데뷔 싱글앨범 ‘플라이 업(FLY-UP)’으로 2022년 9월 기준 누적 출하량 10만 장을 넘기며 동일 협회에서 골드 음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케플러는 지난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2 엠넷 재팬 팬즈 초이스 어워즈 (2022 Mnet Japan Fan's Choice Awards)’에서 올해의 루키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 6일 발표된 ‘유튜브 팬페스트 재팬 2022(YouTube Fanfest Japan 2022)’에서 ‘일본 내 톱 뮤직비디오 랭킹 2022’ 7위에 케이팝 팀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일본 현지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 ‘아바타:물의 길’ 개봉 2주만에 600만명 ↑ ...올해 5번째

경쟁작 없어 700만 관객 달성 무난 할 듯



영화 ‘아바타:물의 길’이 개봉 14일만에 6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6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아바타:물의 길’ 포함 5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아바타:물의 길’은 27일 20만3979명을 추가, 누적 관객수 601만6836명을 기록했다. 앞서 올해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 중 600만 고지를 밟은 작품은 ‘범

죄도시2’(1269만명) ‘탐견:매버릭’(817만명) ‘한산:용의 출현’(726만명) ‘공조2:인터내셔널’(698만명) 4편이 있다. 현재 흥행 추세라면 ‘아바타:물의 길’은 무난히 700만 관객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 7시30분 현재 이 영화 예매 관객수는 58만4857명이다. 또 내년 1월 중순까지 이렇다 할 경쟁작도 없는 상황이다.

‘아바타:물의 길’은 2009년 외국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긴 ‘아바타’(1333만명)의 후속작이다. ‘아바타’는 총 수익 29억 달러(약 3조 7640억원)로 역대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영화는 전작에서 부부가 된 ‘설리’와 ‘네이티리’가 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작에서 사랑한 ‘쿼리치’가 아바타로 다시 태어나 설리와 네이티리에게 복수를 감행하자 설리-네이티리 가족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 부족 멧케 이나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샘 워딩턴과 조이 살다나가 다시 한 번 각각 설리와 네이티리를 연기했고, 쿼리치 역의 스티븐 램도 또 한 번 출연했다. 또 시고니 워버, 케이트 윈슬렛 등도 함께했다. ‘아바타:물의 길’의 전 세계 총 수익은 10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아바타:물의 길’은 9억5520만 달러(약 1조2150억원)를 돌파했다. 올해 전 세계 개봉작 중 매출액 10억 달러를 기록한 영화는 ‘탐견:매버릭’(14억8870만 달러)과 ‘쥬라기 월드:도미니언’(10억 달러) 2편이다.